

아동의 내외통제소재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¹⁾

The Relation between Children's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and Social Competency

고려대학교 가정교육학과 대학원

김 선 미

고려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교수 정 옥 분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

Graduate School : Sun Mee Kim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

Prof. : Ock Boon Chung

〈 목 차 〉

I. 서론

II. 관련연구 고찰

III. 연구 방법

IV. 연구 결과

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 between children's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and social competenc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53 mothers and their children of third and sixth grades in the five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Seoul.

The modified version of Nowicki and Strickland's CN-SIE(Locus of Control Scale for Children) was administered to assess the children's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To assess the children's social competency, questionnaire developed by Lee Kyung Hee(1993) was used.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re was significant interaction between grade level and sex in children's locus of control. Significant

1) 본 논문은 1994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difference was found in children's locus of control in terms of children's social status level. 2)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children's social competency in terms of children's sex and social status level. 3) Children's social competency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 internal locus of control orientation. 4) The relation between children's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and social competency for boys was greater than that for girls. The relation between children's locus of control and social competency was not influenced by children's grade level, but affected by children's social status level. Social status level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 relation of the two concerned variables.

I. 서론

인간의 사회적 행동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행동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관계 지각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신과 타인의 행동 및 사건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지각하려 하며 그 원인의 지각에 따라 행동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인간 행동의 특성을 설명하는 이론적 체계 중에서 인과적 측면의 성격 특성을 구성하는 변인으로 Rotter(1966)의 사회학습 이론에 근거한 내외통제소재(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가 있다. 내외통제소재는 인간의 현재와 미래의 제반 행동 특성을 예언하는 중요한 변인임에도 아직 아동의 내외통제소재를 전반적인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시켜 심도있게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사회적 능력은 인간 누구나 탄생의 순간부터 필수 불가결한 능력이다. 영아기에는 생득적인 사회적 능력이라 할 수 있는 본능적인 신호를 보냄으로써 인적, 물적 주위 환경을 자신이 필요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가 성장함에 따라 점차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수용되는 방식으로 행동과 말을 구성하여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감정을 표현하며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방법을 습득하게 된다. 즉, 사회적 능력은 환경에 적응하고 상호작용을 할 때 효율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 사회의 유능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포괄적 적응능력이라 하겠다.

사회적 능력이 부족하여 반사회적이고 비도덕적인 부적응 행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릇된 행동과 태도의 원인을 타인이나 환경 또는 사회

의 탓으로 돌리려는 행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현실점에서, 어려서부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적통제성의 발달을 위한 꾸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의 중요 심리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 내외통제소재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규명하여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 능력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아동의 통제소재 발달의 지도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 목적에 따라 제기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내외통제소재는 학년, 성별, 사회계층에 따라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
2.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학년, 성별, 사회계층에 따라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
3. 아동의 내외통제소재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관련연구 고찰

1. 내외통제소재

내외통제소재는 Rotter(1954)가 사회학습이론을 통하여 소개한 인간의 성격 변인들 중의 하나로서 자신의 행동과 이에 따르는 강화간의 인과적 관계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와 관련된 특성이다.

Rotter(1966)의 이론에 따르면, 어떤 행동이 주어진 상황에서 발생할 잠재력은 그 상황에서 강화가

있으리라는 개인의 기대와 강화가 가지는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인간행동의 결정 요인이 개인의 성격 특성과 환경적 상황의 상호작용에 있다고 보는 입장이며 주된 핵심 개념은 기대이다. 이 기대는 과거의 경험에 의존한 특정기대와 다양한 상황에서의 일반적인 기대인 일반화된 기대로 구분된다. 개인의 통제소재는 위 두가지 기대 중 특정기대보다는 일반화된 기대와 관련된 것으로, 행동의 인과관계를 지각하는 방법에 따라 내적통제소재와 외적통제소재로 구분된다.

내외통제소재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Rotter(1966)의 사회학습이론과 Hider(1958), Winer(1972)의 귀인이론적 접근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이 이론들은 모두 인간에게 실제로 작용하거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 행동결정인자로서 개인의 내적 특성이나 외적 환경 그 자체보다는 인간이 지각한 행동의 원인에 더 관심을 둔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원인지각경향은 개인의 인지 및 정서적 경험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신이 행한 행동 결과에 대한 원인지각을 달리 함으로써 후속 행동과 태도가 변화될 수 있다고 하겠다(Winer, 1974).

내외통제소재의 관련연구를 보면 먼저 자존감 및 유능감 지각에 관한 연구로 Abraham과 Cristopherson(1985)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내적통제자와 높은 유능감 지각과의 강한 상관을 밝혔다. Moyal(1977)은 국민학교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외적통제와 우울간에 정적 상관이 있으며, 자아존중감과 외적통제, 자아존중감과 우울간에 부적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내외통제소재와 성취동기와 성취수준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Weiner(1974), Rotter(1966) 등의 연구자들이 내적통제자가 외적통제자에 비해 성취동기수준이 더 높았음을 보고하였다. 또 내적통제와 학업성취도 간에 정적 상관이 있음을 밝히고 있고(김이천, 1988; Nowicki & Brissett, 1977), 조현주(1981)는 내적통제성과 도덕적 판단수준이 정적으로 상관됨을 보고하였다.

내외통제소재의 성차를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Rotter(1966)는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외적통제적이라고 하였다. McGinnies, Nordholm, Ward 그리고 Bhanthumnavin(1974)은 미국, 일본, 스웨덴, 뉴우질랜드, 호주 5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비교문화 연구를 하였는데 모든 나라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내적통제적인 경향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국민학교 5, 6학년 아동에게 CN-SIF(Locus of Control Scale for Children)를 사용하여 내외통제소재를 측정 한 조희진(1982)의 연구에서는 모두 내외통제소재에서 성차가 없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내외통제소재와 연령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Nowicki와 Strickland(1973)는 국민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내외통제성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통하여 연령 증가에 따라 외적통제성에서 내적통제성으로 점차 발달해 간다고 하였다. Sherman(1984)은 8-12세의 국민학교 아동을 3년동안 연구한 결과, 아동의 내외통제소재는 종적으로 뿐만 아니라 횡적으로도 연령에 따른 의미있는 증가를 보였다고 보고했다. 우리나라의 연구에서 이훈구(1980)는 도시와 농촌의 초, 중, 고생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교수준이 국민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감에 따라 내적통제성이 증가되었으나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내외통제성은 유의있는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했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내외통제성을 관련시킨 다수의 연구에서 애정적, 협조적, 자율적, 민주적, 등 소위 양질의 양육태도 특성을 가진 부모의 자녀들이 더 내적통제성을 지녔다고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조희진, 1982; Katkovsky, Crandall & Good, 1967).

아동의 사회계층에 따른 내외통제성의 발달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드문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년, 성별과 더불어 사회계층을 내외통제소재와 관련시켜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2. 사회적 능력

O'Mally(1977)는 사회적 능력의 개념을 다음 네 가지 관점에서 정리하고 있다. 첫째는 동물행동학적인 관점으로 사회적 능력을 환경에 적합한 행동을

나타내는 적응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각 환경에 내재되어있는 상황들이 다양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인간은 생존을 위해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발달시킨다는 것이다.

두번째 관점은 사회적 능력을 사회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즉, 사회적 능력이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대인관계의 목적을 달성하는 능력이므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행동 유형의 소유, 상황에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내적 자원의 소유가 사회적 능력에 포함된다(Weinstein, 1969).

세번째 관점은 사회적 능력을 인성의 구조이론적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사회적 능력이란 여러개의 분리된 인성적 구조 요인의 부가적인 결과이며, 다양한 인성구조 중에서 긍정적인 속성을 포함하고 있는 특성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사회적 능력으로 보고 이 속성들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둔다.

네번째 관점은 동기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동기는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있는 유기체의 본질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며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가장 적합한 학습으로 유도하는 힘이다. Bronson(1974)은 사회적 능력과 동기는 서로 관련이 있어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주는 행동에 동기를 부여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회적 능력에 관한 네 가지의 관점은 개념과 접근방법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인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광의의 사회적 능력이란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특히 사회적 측면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효율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아동의 사회적 능력 측정 방법에는 크게 또래에 의한 평가, 교사나 부모에 의한 성인의 평가, 행동관찰, 자기보고 등의 방법으로 나뉘질 수 있다.

Green, Forehand와 Beck과 Vosk(1980)는 여러 측정방법을 비교한 결과 아동의 자기보고 방식을 제외한 사회적 능력 측정 방법들은 서로 관계가 깊었다

고 했다.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현실적으로는 비용과 시간 등 여러가지 제한이 따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아동을 폭넓게 관찰할 수 있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으므로 실제적인 상황에서 아동의 행동을 평가하는 데 유리한 입장에 있는 어머니가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사회적 능력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개 유아나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개인차를 감안한 사회적 능력의 안정성과 다른 발달요인들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의 연령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주된 연구 방향은 아동 초기의 사회적 경험 즉, 부모나 그 밖의 가족관계에서 얻은 경험의 질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연구, 아동의 사회적 문제해결 기술이나 정보처리에 초점을 둔 연구(Dodge, Pettit, McClaskey, & Brown, 1986)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의 내용은 초기의 애착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Lieberman, 1977),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어머니와의 상호작용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Green, Forehand, Beck, & Vosk, 1980), 그리고 이후의 적응상태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Cowen, Pederson, Babigan, Izzo, & Trost, 1973)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능력이 높으며(Lieberman, 1977) 주위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고(Cassidy, 1987), 학교에서도 또래나 교사와의 관계가 좋다(Cohn, 1990).

아동의 적응과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에 의하면 아동기의 사회적 적응은 성장 후의 적응과 관계가 있다. 아동초기에 교재를 기피하고 분노를 잘 나타내어서 다른 아동들로부터 기부당하여 고립된 아동의 경우, 아동후기와 성인 초기에 학업 중단의 비율이 높고 비행이 잦거나 정신병을 일으키며 사살하는 빈도가 높다(Cowen et al., 1973; Pettit, Dodge & Brown, 1988). 또 사회적으로 능력이 없는 아동은 학문적인 성취를 이루지 못하며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을 많이 보이고 협동, 욕구전달, 친구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기와 같은 사회적 행위가 부족하다(Gottman et al., 1975).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과 또래집단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 보면, 동물 행동학적 접근으로 Suomi와 Harlow(1978)는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또래놀이가 성숙한 원숭이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행동발달의 기초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이를 아동들에게 적용한 연구에서 Blurton-Jones(1972)는 아동들에게도 동료집단이 사회적 적응력을 길러준다고 했으며, Hartup(1980)은 또래집단은 강자와 약자에게 대처하는 법과 보살피고, 보호하고, 가르치며 책임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보고했다.

인지능력을 강조한 Piaget(1969)는 또래 접촉을 통해 사회인지 기능이 개선됨에 따라 아동은 더 세련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게 된다고 함으로써 사회적 능력의 발달에 또래집단의 영향력을 강조했다.

사회화학습이론가인 Bandura(1981)는 아동은 또래와의 사회적 비교로 자기보상이나 처벌(내적 자기-조절과정)의 강도를 결정하고, 자신과 비슷하거나 조금 나은 아동의 수행능력과 비교하여 자기 효능감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3. 내외통제소재와 사회적 능력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내외통제소재와 사회적 적응간의 관계를 보고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evenson(1973)은 관계연구에서 내적통제자들은 외적통제자들 보다 사회적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했고, Hersh와 Scheibe(1967)도 내외통제성 정도는 사회 적응과 개인적 성취 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고 하였다. Smith(1970)의 연구에서도 내적통제자가 대인관계의 적응수준이 외적통제자보다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 Dollinger와 Taub(1977), Duttweiler(1984), Lefcourt(1976)는 내적통제자가 외적통제자 보다 생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진취적, 목표지향적 행동을 보이며 자율성과 상호 의존성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가족, 친구와 긍정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하였으며, Crandall과 Crandall(1983)은

내적통제자가 외적통제자 보다 정서적 조절능력이 더 우수함을 보고하였다. Brissett와 Nowicki(1973)는 좌절 상황에서 내적통제자가 보다 건설적인 반응을 보임을 밝혔다. 또 내적통제자가 외적통제자에 비하여 환경에 대한 정보추구에 더 능동적인 역할을 하며 정보의 입수에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이며 모호한 상황에서도 정보와 법칙을 빨리 발견한다고 보고하고있다(Davis & Phares, 1967).

이에 반하여 외적통제자들은 내적통제자들에 비해 혐오적인 상황을 피하거나 도전을 받아들이는 데 더 무기력해서 학습된 무기력을 갖게된다(Pittman & Pittman, 1979)고 하였다. 김영례(1981)는 내적통제자는 지배적이고 책임감있는 대인관계 행동을 보이고, 외적통제자는 유순하고 자기 비하적인 대인간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했다. 아동의 통제소재에 따른 지각된 유능감을 살펴본 박수남(1990)의 연구에서는 사회행동 영역의 중요성을 높게 지각한 아동집단에서는 내적통제자가 외적통제자 보다 사회행동 영역에서 유능감 지각이 높았고, 사회 행동 영역의 중요성을 낮게 지각한 집단에서는 내외통제소재에 따른 사회행동 영역의 유능감 지각에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아동의 내외통제소재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은 모두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적응능력으로서의 사회적 능력과 내외통제성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단순한 사회적 행동이나 적응과의 관계연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심리적 특성인 내외통제소재가 사회적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내 5개 구(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노원구, 강남구)에 소재한 5개 국민학교의 3학년과 6학년 각 6학급씩 12개 학급의 남녀 아

동 453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용과 어머니용 질문지 각각 520부씩 총 1040부를 배부하였고 이 중 993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95.5%였다. 회수된 자료 중 미완성이나 부실기재, 쌍을 맞출 수 없는 자료를 제외하고 실제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어머니, 아동 각 453부 총 906부였다. 연구 대상 아동 중 남자는 224명으로 49.4%, 여자는 229명으로 50.6%였고 3학년은 225명으로 49.7%, 6학년은 228명으로 50.3%이었다.

2. 측정 도구

1) 내외통제소재

Nowicki와 Strickland(1973)가 만든 아동용 내외통제 척도 CN-SIE(Locus of Control Scale for Children)를 바탕으로 김이천(1987)이 수정 제작한 도구를, 연구자가 예비조사를 토대로하여 대상 아동들의 수준에 맞고,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다수의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Nowicki와 Strickland(1973)의 CN-SIE는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 제작 당시의 반분 신뢰도는 3, 4학년은 $r=.63$, 6, 7, 8학년은 $r=.68$ 이었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3학년은 .63, 7학년은 .66 이었고 Nowicki & Strickland(1973)에 의해 구성타당도가 입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김이천(1987)이 수정 제작한 CN-SIE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렇다”와 “아니다”의 양자택일 형식으로 만들어진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문항의 내용은 학업이나 지적 행동에 대한 신념과 미신에 대한 일반적인 지각, 부모와 친구와 관련된 행동과 강화간의 일관성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Rotter(1966)의 정의에 근거하여, 통제소재란 아동이 행동에 뒤따르는 강화에 대하여 일관성있고 일반화된 기대를 갖고있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어떤 행동이나 사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자신의 행동이나 영속적 특성같은 개인 내부적인 원인에 둘 경우 내적통제소재라고 정의하였으며, 이에 관한 문항은 13문항이며 “그렇다”인 경우 1점을 “아니다”인 경우는 0점을 주었다. 그리고 행동이나 사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행운, 기

회, 운명, 또는 힘 센 타자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지각하거나 그를 둘러 싸고 있는 힘이 너무 크고 복잡해서 예측할 수 없다고 지각할 때 외적통제소재라고 정의하였으며, 이에 관한 문항은 12문항이며, 반대로 “아니다”인 경우 1점을 “그렇다”인 경우에 0점을 주었다. 따라서 전체 점수 범위는 0점부터 2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통제적임을 의미한다. 김이천(1987)이 보고한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r=.8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53이었다.

2) 사회적 능력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아동이 유능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적응 능력으로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사회적 목적을 효율적으로 획득함과 동시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달을 추구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문항의 구성요인으로는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수용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 제작한 이경희(1993)의 측정도구의 개념에 근거하여 주도성(자신있게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앞장서서 놀이를 이끌며 다른 아이에게 지시를 잘 하며, 다른 아동들이 그 지시나 행동을 잘 따라한다.), 사교성(친구들과 함께 잘 어울리며 친한 친구가 많고 친구들이 많이 찾는다.), 책임감(해야 할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하며 맡은 일은 무엇이나 잘 하려고 노력한다.), 개방성(학교생활이나 친구관계에서 생기고 고민거리나 갈등 등 모든 일에 대해 의논하며 자신의 생각, 느낌, 견해 등을 솔직하게 표현한다.)을 포함시켰다.

척도는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5단계의 Likert 형식으로서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 측정도구이다. 응답자는 1점(전혀그렇지 않다)부터 5점(아주 그렇다)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경희(1993)가 보고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주도성 .79, 사교성 .81, 책임감 .81, 개방성 .6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같은 순서로 .84, .84, .82, .75였다. 그리고 요인타당도가 입증되었다

(이경희, 1993).

3) 사회 계층

홍두승(1983)의 직업 분류를 사용하여 아버지의 직업을 측정하고, 홍두승(1983)의 직업에 따른 사회계층 분류를 근거로 하여 연구 대상 아동의 사회계층을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에 따라서 사회계층을 분류하였으며, 부모 모두 직업을 가진 경우는 둘 중 더 높은 계층의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 결과 연구대상의 사회계층별 빈도 및 백분율은, 상층 65명(14.6%), 중층 303명(67.9%), 하층 78명(17.5%)였다.

3. 연구 절차

예비조사는 서초구의 1개 국민학교 3학년과 6학년 아동 26명씩 52명을 대상으로 1994년 9월 1일부터 5일 사이에 실시하였고 예비조사 결과 명확한 의미 전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본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조사는 1994년 9월 8일과 22일 사이에 시행되었다. 실시방법은 아동의 내외통제소재 질문지는 아동들에게 자연스런 상황을 유지하도록 하기위해 담임 선생님께 실시방법을 설명한 후 담임선생님의 지도로 교실에서 아동들이 응답하였고, 아동의 사회적 능력 측정을 위한 질문지는 담임선생님이 아동을 통해 어머니에게 배부하여 어머니가 평정하도록 한 후 2-3일 후에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회수하였다. 3, 6학년 아동 520명 전원의 자료와 어머니용 자료 473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에서 부실기재나 쌍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료를 제외하고 453쌍의 자료 906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 분석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아동의 학년, 성별 그리고 사회계층(상, 중, 하)에 따른 내외통제소재의 차이와 아동의 학년, 성별 그리고 사회계층(상, 중, 하)에 따른 사회적 능력

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각각 삼원 변량분석을 시행하였고 집단간의 차이를 보기위하여 추후검증으로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학년, 성별 그리고 사회계층(상, 중, 하) 각각에 따른 사회적 능력제 하위 요인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내외통제소재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분석과, 아동의 내외통제소재와 사회적능력의 제 하위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경우의 유의 수준은 $\alpha=.05$ 로 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아동의 내외통제소재와 사회적 능력

<표 1>의 아동의 내외통제소재의 평균은 총점의 평균을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통제임을 의미한다. 평균 점수는 3학년 여아가 17.57로 가장 낮고 6학년 여아가 18.46으로 가장 높았다. 3학년은 남아가 18.13, 여아가 17.57이었고, 6학년은 남아가 17.87, 여아가 18.46이었다. 남아의 경우는 3학년보다 6학년의 점수가 약간 낮아졌으며 여아의 경우는 3학년에 비해 6학년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능력은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각 하위요인의 문항의 수가 다르므로 하위요인별 평균 점수를 문항의 수로 나누어 요인별 비교를 하였다. 어머니가 평가한 아동 전체의 사회적 능력의 평균은 3.44(총점의 평균은 92.77)이었다. 이를 남녀 별로 보면 남자는 3.39(총점의 평균은 91.59), 여자는 3.48(총점의 평균은 94.10)로 여아의 능력이 더 높게 평가 되었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사교성이 평균 3.79로 가장높게 평가 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개방성 3.54, 책임감 3.46, 주도성 3.16의 순으로 평가되었다. 남녀 아동을 비교해 보면 주도성과 사교성에서는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나 책임감과 개방성은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게 평가되었다. 남녀 모두 개방성은 3학년보다 6학년이 낮아진 반면 책임감과 사교성은 높아졌다.

2. 아동의 학년, 성별, 사회계층에 따른 내외통제 소재

〈표 1〉에서 기술된 바 있는 아동의 내외통제소재의 일반적인 경향을 기초로 하여, 아동의 학년(국민학교 3, 6학년), 성별(남, 여), 사회계층(상, 중, 하)에 따른 내외통제소재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삼원 변량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 집단간, 성별 집단간 아동의 내외통제소재의 주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계층 집단간의 주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Scheffé 검증의 결과는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계

층 하 집단에 비해 상 집단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음을 나타낸 것으로 이는 상 집단 아동이 하 집단 아동에 비해 더 내적통제적임을 의미한다. 또 학년 집단과 성별 집단과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상호작용의 경향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는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그림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의 내외통제 점수는 남아는 3학년보다 6학년이 약간 낮은 경향을 보이고, 여아는 3학년에 비해 6학년의 점수가 높게 나타남으로서, 성장함에 따라 여아가 남아보다 더 내적통제적이 됨을 나타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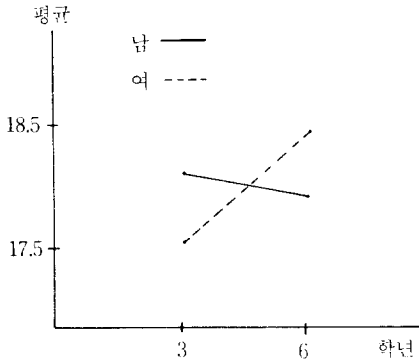
〈표 1〉 아동의 내외통제소재와 사회적 능력의 하위요인 별 평균 및 표준편차

		남				여				전 체	
		3학년 N=106		6학년 N=118		3학년 N=119		6학년 N=110		N=453	
		M	SD	M	SD	M	SD	M	SD	M	SD
내외통제		18.13(2.58)		17.87(3.09)		17.57(2.69)		18.46(2.71)		18.03(2.78)	
사회적 능력	주도성	3.21(.67)		3.13(.53)		3.22(.69)		3.09(.61)		3.16(.63)	
	사교성	3.77(.69)		3.84(.66)		3.66(.84)		3.91(.65)		3.79(.72)	
	책임감	3.34(.73)		3.34(.69)		3.57(.76)		3.60(.69)		3.46(.73)	
	개방성	3.51(.78)		3.28(.80)		3.85(.75)		3.52(.86)		3.54(.82)	
	전 체	3.41(.59)		3.37(.48)		3.50(.61)		3.47(.50)		3.44(.55)	

〈표 2〉 아동의 내외 통제소재에 대한 삼원 변량분석(N=446)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자승화	F	Scheffé 검증 상 승 하
학년(A)	1	4.924	4.924	.65	
성별(B)	1	.444	.444	.06	
사회계층(C)	2	58.435	29.218	3.83*	a ab b
A x B	1	53.963	53.963	7.08**	
B x C	2	.513	.257	.03	
A x C	2	12.892	6.446	.85	
A x B x C	2	20.045	10.023	1.31	
오차	434	3454.825	7.643		
전 체	445	3462.000			

* p<.05 ** p<.01



〈그림 1〉 내외통제소재의 학년, 성별 상호작용효과

3. 아동의 학년, 성별, 사회계층에 따른 사회적 능력

아동의 사회적 능력 점수의 평균을 기초로 하여, 아동의 학년, 성별, 사회계층에 따른 사회적 능력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삼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과 사회계층 집단의 주효과가 유의했다. 그리고 모든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성별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아 집단의 사회적능력 점수의 평균이 3.48(총점의 평균 94.10)로 남아집단의 평균 3.39(총점의 평균 91.59)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아보다 여아의 사회적 능력이 더 높게 평가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사회계층 상 집단과 중 집단간, 중 집단과 하 집단간, 상 집단과 하 집단간의 차이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높게 평가되었음을 의미한다.

성별, 학년, 사회계층에 따라 사회적 능력의 제 하위요인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보기 위해 t검정과 일원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와 Scheffé 검증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에 보여진 바와 같이 주도성과 사교성은 남아 아동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책임감과 개방성은 남아에 비해 여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년 별로는 주도성과 책임감은 유의

차가 없었고 사교성은 3학년보다 6학년이, 개방성은 3학년보다 6학년이 유의미하게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사회계층에 따라서는 사회적 능력 제 하위요인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각 집단간의 차이를 보기 위한 Scheffé검증을 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4. 아동의 내외통제소재와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아동의 내외통제소재와 사회적 능력 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또 아동의 내외통제소재와 사회적 능력의 제 하위요인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5〉에서 보듯이 아동의 내외통제소재와 사회적 능력 전체의 상관계수 Pearson's r은 .273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내외통제소재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상호 설명력이 약 7.5%임을 나타낸 것이다.

아동의 내외통제소재와 사회적 능력의 관계성을 더 상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 학년, 사회계층 각각에 따른 두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성별에 따른 내외통제소재와 사회적 능력의 관계를 보면, 남아가 여아보다 상관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는 사회적 능력에 대한 내외통제소재의 설명력이 약 8.8% 인데 비해 여아는 약 6.4%정도에 그치고 있다. 학년에 따른 두 변인간의 상관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계층에 따라 두 변인 간의 상관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계층이 상인 집단은 설명변량이 약 12.7% 이며 중인 집단은 약 6.3%, 하인 집단은 약 4.2%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아동의 내외통제소재와 사회적 능력 간의 관련성이 더 크며 상호 간의 설명력이 더 큼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표 3〉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삼원 변량분석(N=446)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자승화	F	Scheffé 검증 상 중 하
학년(A)	1	44.535	44.535	.21	
성별(B)	1	968.378	968.378	4.66*	
사회계층(C)	2	5921.773	2960.887	14.25***	a b c
A x B	1	143.591	143.591	.69	
B x C	2	257.522	128.761	.62	
A x C	2	390.239	195.120	.94	
A x B x C	2	665.765	332.883	1.60	
오차	434	90202.208	228.380		
전체	445	98523.527			

* p<.01 *** P<.001

〈표 4〉 아동의 성별 학년 사회계층에 따른 사회적 능력 하위요인별 t, F검증과 사회계층 집단간 Scheffé검증

구 분	성 별(남,여) t	학 년(3,6) t	사 회 계 층 F	상, 중, 하 Scheffé검증
주도성	.21	1.73	17.15***	a b c
사교성	.36	2.41*	4.60**	a b b
책임감	-3.58**	-.07	7.60***	a a b
개방성	-3.94***	3.90***	4.25**	a ab b

* p<.05 ** p<.01 *** p<.001

〈표 5〉 아동의 내외통제소재와 사회적 능력 제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

(N = 453)

	주도성	사교성	책임감	개방성	사회적능력 전체
내외통제소재	.208***	.227***	.220***	.194***	.273***

*** p<.001

〈표 6〉 아동의 성별 학년 사회계층에 따른 내외통제소재와 사회적 능력 간의 상관관계

구 분	사 회 적 능 력						
	성 별		학 년		사 회 계 층		
	남	여	3학년	6학년	상	중	하
내외통제소재	.296***	.253***	.277***	.281***	.356**	.251***	.204

** p<.01 *** p<.001

V. 논의 및 결론

1. 요약 및 논의

1) 아동의 내외통제소재

아동의 내외통제소재의 일반적 경향을 볼 때, 남아의 경우는 3학년과 6학년의 차이가 없었으나 여아의 경우는 3학년에 비해 6학년이 유의하게 내적통제적으로 발달함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 시기의 아동은 남아보다 여아가 원인 지각에 관한 심리적 특성인 내외통제소재가 더 빨리 성숙되어서 여아가 남아보다 자신의 행동과 태도의 책임을 스스로에게 돌리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또 사회계층에 따라서 내외통제소재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상 집단이 하 집단에 비해 내적통제적임이 밝혀졌다. 이는 사회계층 하 집단의 아동들은 상 집단의 아동들에 비해 환경적 여건으로 인해 자신이 통제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다고 지각해서 행동의 원인이나 결과를 환경이나 외적 요인의 탓으로 더 많이 돌리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실제 문항에서는 학업 성적과 관련된 문항인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성적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와 “누구나 열심히 노력한다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의 문항에서 각각 평균 .96, .95로 가장 높은 내적통제 성향이 나타남으로써, 아동들은 학업성적을 운이나 재수보다는 자신의 노력과 가장 많이 결부시켜 생각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교사, 주변 어른들이 성적에 관한 언급을 할 때 아동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장 강조해온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부모와 교사 등의 교육으로 아동의 내적통제소재를 발달시킬 수 있다는 강한 증거를 시사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또 “아침에 어떤 일이 잘되면 그 날은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일이 잘된다.”의 문항에서 평균 .37로 가장 외적통제 성향으로 나타남으로써, 아동들은 하루의 재수를 묶어서 생각하려는 심리적 특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난 일과 상관없이 그 이후의 일은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 노력

의 조절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건설적인 학습 경험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2) 아동의 사회적 능력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 볼 때 어머니가 평가한 아동의 사회적 능력 전체의 평균은 3.44(1-5점 척도상에서)였으며, 이는 어머니가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남녀 아동을 비교했을 때 여아의 사회적 능력이 남아보다 유의하게 높게 평가 되었으며 하위요인 별로는 책임감과 개방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책임감이란 일종의 성취노력이며 사회적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유도되는 것이라는(Sears, 1963)점을 감안할 때, 이 시기의 아동은 일반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인정을 받고자 하는 정도가 높음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개방성을 묻는 질문 내용은 주로 어머니와 의논을 잘하고 어머니와 이야기 하기를 좋아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음을 볼 때 여아가 성장함에 따라 어머니와의 동일시를 통하여 성역할 정체감이 확립되므로 남아보다 어머니와 친밀한 대화를 더 나누게 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 학년별 비교에서는 전반적인 사회적 능력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하위요인 중 사교성은 6학년이 3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개방성은 3학년에 비해 6학년이 유의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사교성은 증가하는데 반해, 아동이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독립심의 증가와 문제해결 능력의 발달로 모든 일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거나 의논하는 일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개방성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개방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본 측정도구의 개방성에 관한 문항이 3학년과 6학년 아동 모두의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는데 타당한 것인지는 추후의 연구에서 재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사회계층 상, 중, 하 각 집단간 차이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상 집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 집단, 하 집단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Gottman, Gonso와 Rasmussen(197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의 생활을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자녀의 행동에 민감하고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사회성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다층면적으로 잘 제공되어서 대인관계에서 자신있고 사교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어머니가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평가할 때 사회계층이 상인 집단보다 하인 집단의 어머니들이 심리상태, 생활만족도, 자신감 등의 가외변인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좀 더 부정적인 시각으로 평정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다.

3) 아동의 내외통제소재와 사회적 능력

아동의 내외통제소재와 아동의 전체적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는 상관계수가 .273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변인의 상호 설명변량이 7.5%정도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아동이 행동의 원인이나 결과를 운이나 환경 등의 외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지각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 등 내적요인에 따른 것으로 지각할수록 아동이 사회적으로 더 유능하게 행동한다는 기초 근거 자료를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삶에 필수적인 사회적 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하여는 아동의 부모, 교사, 친지들이, 아동 자신의 태도나 행동이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 의지의 결과라는 점을 꾸준히 교육시키고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교육은 사회적 능력의 부족으로 부적응 행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자신 외부의 환경이나 사회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현 사회에서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또 아동의 성별, 학년, 사회계층에 따라서 내외통제소재와 사회적능력과의 관계성의 정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본 분석에서, 남아(설명변량 8.8%)가 여아(6.4%)보다 더 큰 상관을 보였다. 이는 남아의 경우에 여아보다 내외통제소재와 사회적 능력의 관계성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로서, 남아가 여아보다 내외통제성이 클수록 사회적 능력이 더 높음을

시사해준 것이다.

아동의 학년에 따른 두 변인 간의 관계성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아동의 연령의 증가에 관계없이 두 변인간의 관계성이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 결과이며 이러한 결과는 두 변인간의 관계의 안정성을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점은 추후의 연구에서 계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동의 사회계층에 따라 내외통제소재와 사회적 능력의 상관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상층인 집단은 두 변인 간의 설명변량이 12.7%, 중층 집단은 6.3%, 하층 집단은 4.2%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두 변인 상호간의 설명력이 더 커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의 일부 원인으로, 하층 집단의 아동은 내외통제적이라 하더라도 사회성 조성의 기회부족 또는 다른 부분에서의 자신감의 결여 등으로 사회적으로 적극적이고 사교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2.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와 논의의 토대로 하여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내외통제소재는, 남아의 경우에는 3학년과 6학년과의 차이가 없었으나 여아의 경우에는 3학년보다 6학년이 더 내외통제적 임이 밝혀졌다. 사회계층 별로는,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더 내외통제적이었다.

둘째,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성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아보다 여아의 능력이 더 우수하였다. 학년간의 유의차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회계층 별로는,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사회적 능력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층, 중층, 하층 각 집단 간의 차이가 모두 유의하였다.

셋째, 아동의 내외통제소재와 사회적 능력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즉, 내외통제적일수록 사회적 능력은 우수하였다. 또한, 내외통제적일수록 사회적 능력의 각 하위요인의 능력도 높았는데, 사교성, 책임

감, 주도성, 개방성의 순으로 내외통제소재와의 상관이 나타났다.

넷째, 아동의 내외통제소재와 사회적 능력의 상관은 남아가 여아보다 크게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두 변인간의 상관에 차이가 없었다. 사회계층 집단에 따라서 두 변인간의 상관은 차이가 있었다.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아동의 내외통제소재와 사회적 능력간의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설명변량이 상층 집단(12.7%)은 중층 집단(6.3%)에 비해 두배 정도이고 하층 집단(4.2%)에 비해 세배 정도임이 밝혀졌다.

이상의 논의와 결론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고 이 분야 연구를 발전시킬 추후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동의 내외통제소재 척도가 단일 요인으로 묶여서 내적 합치도가 비교적 높지 않으므로 (Cronbach α = .53), 아동의 전반적인 통제소재 측정도구를 능력, 노력, 운, 과제난이도 등의 하위요인으로 분리하고, 양자 택일의 형식보다는 Likert형식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내용을 보완해서 새로운 척도를 제작함이 요망된다.

둘째, 사회적 능력 척도의 하위요인 중, 개방성이 연령증가에 따라 오히려 유의하게 감소를 보였으므로 개방성을 묻는 각 문항의 재검토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셋째,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어머니가 평정하도록 하여, 아동의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어머니의 주관이나 생활 만족도, 심리 상태 등의 가외요인을 배제할 수 없었다. 추후연구에서는 부모, 교사, 또래의 평가를 종합한다면 더 신뢰로운 연구가 될것임을 제안한다.

넷째, 선행 연구들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주로 부모와 가정배경변인과 관련시켜 연구해 왔으므로, 앞으로 아동의 심리적 요인과 관련시킨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 되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1) 김이천(1987). 내-외재적 통제의 소재와 학업성취 및 시험불안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수남(1990). 아동의 통제소재에 따른 지각된 유능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2) 이경희(1993).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3) 이훈구(1980). 내외통제성 : 한국 초, 중, 고 학생의 내외통제 경향성, 충북대학교 학생 생활연구소, 학생 생활연구 제 5집.
- 4) 전경미(1984). 아동의 내외통제 신념이 포부수준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5) 조현주(1981). 내외재적 통제와 도덕적 판단력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6) 조희진(1982).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내외통제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7) 홍두승(1983). "직업분석을 통한 계층연구-'한국 표준직업분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 5권 3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PP. 69-86.
- 8) Abraham, K.G. & Christopherson, V.A.(1985). Perceived competence among middle school children : Parent antecedents and relation to locus of control.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4, 343-351.
- 9) Bandura, A.(1981). Self-referent thought : A developmental efficacy. J.H. Flavell & L.D. Loss (Eds.), Social cognitive development : Frontiers and possible future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0) Blurton-Jones, N.(1972). Ethological studies of child behavior.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1) Brissett, M. & Nowicki, S.(1973). Internal versus

-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and reaction to frust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5, (1), 35-44.
- 12) Bronson, W.C.(1974). Competence and the growth of personality. In K.Conolly & J. Baur (Eds.), *The growth of competence*. New York : Academic Press, 241-264.
- 13) Cassidy, J.(1987). *The ability to negotiate the environment : An aspect of infant competence as related to quality of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7, 331-337.
- 14) Cohn, D.A.(1990). Child-mother attachment of six-year-old and social competence at school. *Child Development*, 61, 152-162.
- 15) Cowen, E.L., Pederson, A., Babigan, H., Izzo, I., D. & Trost, M. A.(1973). Long-term follow-up of early detected vulnerable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 438-446.
- 16) Crandall, V.C. & Crandall, B.W.(1983). Maternal and child-behaviors as antecedents of internal external control perceptions in young adulthood. In H.M. Lefcourt(Ed.), *Research with the locus of control construct*, (V.2). N.Y. : Academic press.
- 17) Davis, W.L. & Phares, E.J.(1969). Parental antecedents of internal-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Reports*, 24, 427-436.
- 18) Dodge, K.A., Pettit, G.S., McClaskey, C.L., & Brown, M.M.(1986).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1(2), (Serial No.213).
- 19) Dollinger, S. & Taub, S.(1977). The interaction of locus of control expectations and providing purpose on children's motiv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1, 118-127.
- 20) Duttweiler, P.(1984). The Internal control index : A newly developed measure of locus control. *Education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44, (2), 209-221.
- 21) Gottman, J. Gonoso, J. & Rasmussen, B.(1975). Social interaction, social competence, and friendship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26. 709-718.
- 22) Green, K.D., Forehand, R., Beck, S.T., & Vosk, B.(1980). An assessment of the relationship among measures of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Child Development*, 51, 1149-1156.
- 23) Hartup, W.W.(1980). Children and their friends. In H. McGurk(Ed.), *Child Social Development*, London : Methuen.
- 24) Heider, F.(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 Y. :Wiley.
- 25) Hersh, P.D. & Scheibe, K.E.(1967). Realiability and validity of internal-external control as a personality dimen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1, 609-613.
- 26) Katkovsky, W., Crandall, V.C. & Good(1967). Parental antecedents of internal-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s in intellectual achievement situations. *Child Development*, 38, 765-776.
- 27) Lefcourt, H.(1976). Some problems and misconceptions related to the construct of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No.1), 56-57.
- 28) Levenson, H.(1973). Perceived parental antecedents of internal, powerful others, and chance locus of control orient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9,(2) 268-274.
- 29) Lieberman, A.F.(1977). Preschoolers' competence with a peer : Relations with attachment and peer experience. *Child Development*, 48, 1277-1287
- 30) Moyal, B.R.(1977). Locus of control, self esteem, stimulus, appraisal and depressive symtoms in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5 No 5, 951-952.
- 31) Nowicki, S.J. & Strickland, B.R.(1973). A locus of control scale for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 and Clinical Psychology, 40, 148-153.
- 32) O'Mally, J.M.(1977). Research perspective on social competence. Merrill-Palmer Quarterly, 23 (11), 29-44. Petti, G.S., Dodge, K.A., Brown, M. M.(1988). Early experience, social problem solving pattern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8, 324-340. Piaget, J. (1969). The language and thought of the child, London:Routledge & Kegan Paul, Pittman, N L. & Pittiman, T.S.(1979). Effects of amounts of helplessness training and internal- external locus of control on mood and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39-47.
- 33) Rotter, J.B.(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80 (Whole No. 609).
- 34) Sherman, L. W.(1984). Development of children's perceptions of internal locus of control : A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52, 338-353.
- 35) Smith, R.E.(1970). Change in locus of control as a function of life crisis resolu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1, 75, 329-332.
- 36) Suomi, S.J. & Harlow, H.F.(1972). Social rehabilitation of isolate-reared monkeys. Developmental Psychology, 6, 487-496.
- 37) Waters, E.J., Wippman, & Sroufe, L.A.(1979). Attachment, positive affect and competence in the peer group : Two studies in construct validation. Child Development, 50. 821-829.
- 38) Weinstein, E.A.(1969). The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D.A. Golsin(Ed.),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Chicago :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 39) Winer, B.(1972). Attribution theory, achievement motivation and the educational proces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2, 203-215.
- 40) Winer, B.(1974). Achievement motivation and attribution theory, New York : General learning press.